



주간통일정세 2008-07(2008.02.11~02.1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8-07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오중흡 7련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제776군부대 관하 대대들 시찰(2/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중흡 7련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제776군부대 관하 대대들을 시찰, 화력 훈련을 지켜보고 교양실, 침실, 식당, 세면장, 부식물 창고, 토끼 사육장 등을 둘러본 뒤 병사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
  -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수행

#### 나. 정치관련

- 체육지도위원장에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학선을 임명(2/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제17차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개막 소식을 전하면서 “박학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박학선이 체육지도부위원장에서 위원장으로 승진 임명된 것으로 파악됨.
  - 박학선은 1985년 청년조직인 사회주의노동청년연맹 중앙위원회 체육부 부장을 지냈고 2006년부터는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 김정일 생일 ‘축제’ 행사 개최 활발(2/12, 연합)
  - 지난 6일엔 ‘2.16경축 제2차 전국소묘축전’과 ‘2.16경축 영화상영 순간(旬間)’이 동시 개막
  - 제12차 김정일화(花) 축전이 13일부터 20일까지 평양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시관’에서 개최
  - 14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제16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 개막
  - 15일부터 17일까지는 체육지도위원회 주최로 평양에서 제17차 백두산상 국제 피겨축전이 개최되어 10여개 국가 선수들 참가 예정
- 김정일, ‘2012년 강성대국 달성’ 강조(2/14, 조선신보)
  - 김 위원장이 지난해 현지도도를 계속하던 중 “조국이 고난의 길로부터 낙원의 길로 들어섰으며 강성대국으로 최후 돌격전을 위한 시기가 성숙했음을 통찰”하고 “2012년을 향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했으며,
  - “2008년을 흥하는 해, 비약하는 해가 되게 하자”, “우리 모두 일을 많이 하고 공화국(북) 창건 60돌을 맞는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고 말



하고 “새해의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한 것으로 보도됨.

#### 다. 경제 관련

##### ● 신발공장 사무원 생산라인으로 돌려(2/11,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은 우선 경공업에 필요한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공장과 기업소에 대한 직무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평양구두공장 리동찬 지배인에 따르면 “그동안 공장에는 사무원과 연구 및 자재관리, 운송 등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인원이 종업원의 25%에 달했으나 작년 10월부터 이들을 높은 기능이 요구되지 않는 직장에 배치”하였으며,
- 이에 따라 사무원의 경우에 오전에는 사무업무를, 오후에는 생산라인에서 직접 생산에 참여

#### 라. 사회·문화 관련

##### ● 김정일 생일연휴 뱀장어요리 공급(2/14, 조선중앙TV)

- 평양 시내 식당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 연휴인 16~17일 뱀장어 요리를 공급할 계획이며,
-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민군 군인들이 수도(평양)의 급양봉사망(식당)들에 많은 양의 뱀장어를 보냈다”고 소개

##### ● 북한에서도 과외단속(‘오늘의 북한’ 111호 ‘좋은 벗들’ 소식지)

- 북한에서도 과외금지령이 내려졌던 80년대 초반의 남한에서와 같이 당국의 과외단속과 몰래과외간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으며,
- 과외 단속은 평양보다는 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 김정일, 재일동포 학생예술단 위해 연회 개최(2/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맞이 모임’에 참가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해 11일 연회를 마련
-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마련한 연회에 김정일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며 김중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유호 해외동포사업국장이 참석

##### ● 노동신문, ‘뉴욕필’ 소개(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뉴욕필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향악단” 중 하나로 소개
- ‘역사가 오랜 교향악단들’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뉴욕필을 ‘뉴욕교향악단’이라고 부르며 오스트리아 빈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을 포함해 세계 3대 교향악단의 역사와 특징 등을 소개



● **아동 만화·인형영화 제작 활발(2/11, 평양방송)**

- 북한의 대표적 애니메이션 제작소인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 아동용 만화 및 인형 영화를 다수 제작중이라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달러위조’설 대미 반박(2/15, 조선중앙통신)**

-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가 2월 9일자에서 북한의 “달러위조설을 유포시키고 있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며 이 신문은 “미국이 ‘화폐위조설’의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웠던 ‘북조선 도주자’는 사기협잡꾼이고 그나마 행방불명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아울러 이 신문이 현재의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달러위조설을 유포시킨 기본 목적은 “경제봉쇄로 우리 공화국(북한)을 굴복시키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 **김영남, 美 이중적 태도 비난(2/16, 조선중앙TV)**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을 기념한 ‘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미국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압살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면서 회유와 압력의 양면술책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의연히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을 지목, “6자회담 막 뒤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무모한 무력 현대화 계획을 계속 다그치”고 있다고 비난

● **시대흐름 맞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 요구(1/13, 평양방송)**

- ‘미국의 대조선 정책을 끝장내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쟁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발전이 현시대의 기본 흐름으로 되고 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립과 분쟁을 끝장내고 화해와 선린우호의 길로 나가고 있다”며
- “미국은 이러한 정세발전과 세계의 변화를 외면하지 말고 대세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

● **리비아·그레그 전 대사, 방북(2/13, 연합뉴스)**

- 에번스 리비아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이 오는 25일 판문점을 통해 평양을 방문, 리비아 회장과



그레그 전 대사는 2월 26일 평양에서 열리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에 참석할 예정

- **北, 핵확산 의혹은 10·3합의 비확산 공약으로 이미 해결(2/12, 조선신보)**
  - 핵신고 관련 북미간 핵심쟁점인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 “10·3 합의문건에 핵무기와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명문화”한 것으로 “사실상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강조

#### 나. 기타외교 관계

- **몽골 ‘힘’ 유한책임회사 총사장 일행 방북(2/14, 조선중앙통신)**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몽골 ‘힘’ 유한책임회사 총사장 일행과 담화
- **北-쿠바, 친선협조 강화(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호세 몬타노 쿠바 대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에 즈음해 13일 대사관에서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을 초대해 연회를 개최
  - 연회에는 최 비서와 함께 김용진 교육상, 김병팔 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강창욱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장 대리 등이 초대됨.

### 3. 대남정세: 남북교류협력 활동

- **이재정 통일부 장관, 1월말 리종혁 北아태위부위원장과 면담(2/14, 연합)**
  -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월 말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대남 사업 관련 고위 인사인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
  - 리 부위원장은 1월 24일 이 장관이 타 부처 장관들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북측 출입사무소(CIQ)로 영접을 나온데 이어 다른 인사들이 공단을 둘러보는 동안 이 장관과 따로 면담한 것으로 보도
- **北에 묘목 양묘장 7개 추가조성 추진(2/14, 연합)**
  - 16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겨레의 숲’은 14일 제2차 정기총회를 열어 황폐한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2011년까지 북한에 총 7개의 묘목 양묘장을 추가 조성키로 했으며,
  - 현재 평양(10ha), 금강산(3ha), 개풍(6ha)에 양묘장을 조성·운영중인 이 단체는 양묘장 7개를 추가 조성할 경우 모두 10개 양묘장에서 매



년 5천ha의 민둥산을 녹화시킬 수 있는 양인 1천500만본의 묘목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북한 레슬링 팀, 제주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 예정 (2/14, 조선일보)**
  - 북한 레슬링대표팀이 3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
  - 북한 레슬링 팀의 방한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이후 6년 만이며,
  - 한국에서 열리는 단일 레슬링대회 참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 **남북도로협력분과위 구체적 합의 없이 종결(2/13, 연합뉴스)**
  - 남북은 13일 개성에서 도로협력분과위원회 이틀째 회의를 갖고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를 협의했지만 사업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에 실패
  - 남북은 2007년 12월 두차례 실시한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식 개보수 착수에 앞선 정밀 안전진단 문제, 공사범위와 방법 등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로 합의문이 아닌 공동 보도문을 채택하고 회의를 마무리
  
- **남북, '겨레말큰사전' 3월 집필 시작(2/13, 연합뉴스)**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남측 편찬위원회 2기 위원장에 선출된 권재일 서울대 교수는 13일 '겨레말큰사전' 집필을 3월달부터 남북이 함께 시작해 2011년까지 기본적인 집필작업을 끝내겠다고 밝힘.
  
- **"승례문 소실, 정권출범 전 불길한 징조"로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 (2/13, 조선신보)**
  - 승례문 소실을 두고 "새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 이런 엄청난 사태(화재)가 발생한 것을 두고 '불길한 징조'라는 소리가 떠돌고 있다"고 전언
  -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장 때 승례문을 개방하고 경비를 허술하게 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성금으로 승례문을 복원하자'고 무책임한 호소를 한 것이 여론의 강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도
  
- **해외동포의 월드컵 남북 예선전 응원 허용(2/13, 조선신보)**
  - 3월 26일 평양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 남북한전에 해외동포의 응원을 허용한 반면,
  - 지난 5일 개성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경기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제안한 1천명 규모의 응원단을 보내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짐.



- **평양 2010 남아공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3차 예선시 태극기, 애국가 응원단 불허(2/13, 조선일보)**
  - 3월 26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2010 남아공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3차 예선 한국과 북한 경기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 한 상황
  - 북한측이 “공화국 역사상 태극기가 하늘에 나부끼고 애국가가 울린 적이 없다”며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 한국응원단 방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
  
- **키킴, 개성공단에 전자팩스 설치(2/11, 연합)**
  - 기업정보화솔루션 전문기업 키킴은은 자사의 팩스문서관리시스템일체형 제품인 ‘명인전자팩스 F-BOX(에프-박스)’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개성공업지구 기술교육센터에 설치했다고 11일 밝힘.
  
- **남·북 첫 공동 문예지 ‘통일문학’ 북한에서 인쇄(2/11, 연합)**
  - 남·북한 문인들이 함께 만든 첫 공동 문예지 ‘통일문학’이 2월 5일 북한에서 인쇄
  - 창간호는 5000권을 찍었으며,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개성에서 육로를 거쳐 2000부가 남측에 전달될 것임.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미·북 관계

- **미, 뉴욕필식 대북 교류 지속 희망(2/12)**
  -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뉴욕필 하모닉의 평양 공연(2/26)과 같은 대북 교류를 바라고 있다고 알렉산더 아비주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음.
  - 아비주 부차관보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 부설 코러스 하우스 강연에서 북한 지도자들의 자각을 높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뉴욕필의 평양공연을 예시하며, 미국은 상호신뢰와 이해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하의 이 같은 대북 교류 프로그램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음.



● 미 국무부, “라이스 북한 안 간다”(2/15)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라이스 장관이 서울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2/25)에 참석한 뒤 다음 날 북한을 방문해 뉴욕필 하모닉의 평양공연을 관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평양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음.

나. 중·북 관계

● ‘훈춘-라선 일체화,’ 양국 경협 의제로 상정

- 중국 훈춘(琿春)과 북한의 라선시를 도로로 연결하고 라진항에 공단 및 보세구역을 건설하는 이른바 ‘훈춘-라선 일체화’ 계획이 북·중 양국의 경협 의제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훈춘시 인민정부 웹사이트(2/14)에 따르면 ‘중·조 노항구(路港區) 일체화 계획’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작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07/9/4) 제3차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의제로 상정됐으며 현재 중국 상무부에서 자료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지린(吉林)성이 동해로 연결되는 해상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은 훈춘 취안허(圈河) 세관 맞은편에 자리잡은 북한 원정리 세관에서 라선시 까지 새 연결도로를 건설하고(路), 양국 공동투자로 라진항 부두를 보수·증설하며(港), 항만 주변에 중국 등 외국기업이 입주하는 공단 및 보세구역을 설립한다(區)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중, 북에 미 정권 교체전 6자회담 재개촉구

- 지난 달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 면담(1/30)에서 6자회담과 관련, 미국의 여야 정권 교체시 회담의 진전이 어렵다며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 중 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2/17)했음.
- 이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시리아에 대한 핵확산 의혹을 문제 삼고 있는데 대해 “이런 식으로는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올 가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되면 담당자도 모두 교체돼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가 어렵게 된다”며 조기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그렇다”며 동감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 한편 3월로 전해진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과 관련, 왕 부장이 “형편이 좋은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거듭 초청했으나, 배석한 강석주 외교부 제1 부부장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당분간 방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다. 일·북 관계

#### ● 일 민주당, 대북 대화추진 의원모임 발족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 15명이 북한과의 폭넓은 교류 촉진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교정상화 실현을 앞당기는 것을 지향하는 의원연맹 ‘한반도문제 연구회’를 2월 넷째 주에 출범시킬 예정임.
- 이 연구회 발족의 중심은 가와우치 히로시(川内博史), 이라오카 히데오(平岡秀夫), 이치무라 고이치로(市村浩一郎) 중의원 의원,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아마시타 야스오(山下八洲夫), 가와카미 요시히로(川上義博), 아오키 아이(青木愛), 요코미네 요시로(横峯良郎) 참의원 등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2/16).

### 라. 기타 관계

#### ● 헤이즐 스미스 교수, “북 일부 지역 시장경제화 이점 누려”(2/12)

- 2000~2001년 「세계식량계획」(WFP) 고문으로 북한에 상주하기도 했던 헤이즐 스미스 영국 워릭대 교수는 미국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북한의 지역별 농업생산과 영양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1990년대의 식량난이 일부 지역에서 시장경제화를 진행시킨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음.
-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02~2003년에 북한의 1인당 곡물 생산을 보면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순으로 많았고 함경북도는 11위, 평양은 마지막 순위이었음.
- 그는 황해남도의 경우 외국과의 교류가 별로 없고 평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교통 접근성이 좋아 중앙의 통제가 비교적 잘 이뤄져 시장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반면, 함경북도는 중국과의 국경을 통해 물자가 오가며 현금을 갖게 되고 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의 정치적 통제가 약화된 가운데 대기근 이후 자족 차원에서 시장화가 진행됐다고 말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미 상원, 이명박 당선 축하 결의안 채택(2/14)

- 미 하원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을 채택(2/7)한 데 이어, 상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 이 결의안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조지프 바이든 의원(민주, 델라웨어)이 주도하고 공화당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척 헤이글(네브래스카) 의



원 등이 공동 발의했음.

- 미 의회가 상·하원에서 이 당선인 당선축하 결의안을 동시에 신속하게 채택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음.

● **미 하원, 대한국 군사협력 강화 법안 발의(2/14)**

-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 및 군사장비, 부품을 구매할 때 현재보다 더욱 신속하고 값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대한(對韓) 무기판매 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수준의 대우를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음.
-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공화)은 이날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3국(나토 회원국 및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한·미 군사협력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음.
- 한국은 현재 미국의 FMS 프로그램에서 세 번째 그룹인 ‘비(非) 나토 주요동맹국’에 속해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두 번째 그룹인 ‘나토+3국’ 수준으로 향상되게 됨.

● **부시, “이 당선인 취임 미 경축특사단 발표”(2/15)**

- 미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이 25일 거행되는 한국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대통령 특사단을 발표했다”며 “라이스 국무장관이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음.
- 부시 대통령이 파견하는 특사단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와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전미 육우목축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 당선인, 윌리엄 로테스 한·미 재계회의 미국측 회장, 한국계 프로 미식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가 공식 대표로 포함됐음.

● **힐 차관보, 중·한·일 순방(2/17~20)**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라이스 장관의 아시아 순방 준비 등을 위해 베이징(2/17), 서울(18~19), 도쿄(2/20)를 차례로 방문한 뒤 캘리포니아로 잠시 돌아올 예정임.
- 그는 서울로 다시 이동(2/23), 라이스 장관과 함께 이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함.

● **라이스 국무장관, 한·중·일 순방(2/23~28)**

- 라이스 장관은 미국을 출발(2/23), 서울에서 열리는 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2/25)한 뒤, 중국 베이징(2/26)과 일본 도쿄(2/27)를 순방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올 계획임.
- 라이스 장관은 방한 기간에 북핵 6자회담 진전 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임.



## 나. 한·일 관계

### ● 한·일 해저터널 실현 위한 일 초당파 의원연맹, 발기인 모임(2/15)

- 한국과 일본을 잇는 철도용 해저터널의 실현을 위해 자민당의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전 방위청 장관과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전 대표 등 비중 있는 여야 의원들은 일본 국회에서 초당파 의원연맹 발기인 모임을 가졌음.
- 이들 발기인은 한·일 해저터널을 ‘평화 창조’의 상징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참가를 호소, 3월 중 연맹을 정식 발족시키기로 했음.
- 한·일 해저터널 구상은 규슈(九州)의 사가(佐賀)현 가라쓰(唐津)시에서 이키(壹岐)섬과 쓰시마(對馬)를 거쳐 부산에 이르는 약 230km를 철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해저 부분은 약 128km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오자와, 방한(2/20~22)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대표가 사흘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민주당측이 밝혔음(2/15).
- 오자와 대표는 방한기간 중李明박(李明博)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2/21)을 갖고 재일동포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 및 북핵 문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두루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민주당은 오자와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 앞서李明박 당선인과 회담을 하게 됨으로써 아시아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음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동북아연구실 제공